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10월 2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28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0. 28(월)	담당부서	자유무역협정기획과
담당과장	박대규 과장(044-203-5740)	담 당 자	이수진 사무관(044-203-5742)

RCEP 및 신남방 3개국 FTA 관련,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

- 협상 동향 및 업종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정부-업계간 의견 교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성윤모)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 :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, 이하) 및 신남방 3개국(인니, 필리핀, 말련)과의 양자 FTA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
※ 행사 개요 : 2019. 10. 28(월) 16:30 ~ 18:00 /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
- (정부 및 유관기관)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(주재), 협상별 담당 과장, 업종별 소관과장 등
- (협회) 20여개 주요 업종별 협·단체 관계자

○ 이번 회의에서 협상별 진행경과 및 현황, 향후 계획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, 협상 타결시 업종별 영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

□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에서 "**세계 경제의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**하기 위한 방안으로 **FTA 네트워크를 보다 견고**하게 형성하고자 RCEP 및 신남방 주요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해 왔다"고 소개하면서,

○ "일부 국가에 편중된 우리 **교역의 다변화***를 위해 **지경학적으로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 아세안**과의 RCEP 및 개별 FTA 체결이 긴요하고, 이를 통해 **수출 동력을 활성화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고 강조하고,

* 교역현황(억불, '18년 기준): 전체(11,400), 中(2,686), ASEAN10(1,597), 美(1,316), 日(851) 등

○ "앞으로 FTA 네트워크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**업계와의 긴밀한 협의**를 토대로 여타국과의 협상에 임할 계획"이라고 설명함

□ 간담회 참석자들은 아세안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우리경제의 현황을 감안시 신남방 국가들과의 FTA 체결·업그레이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, RCEP 및 주요국 양자FTA를 통해 **우리 기업의 수출 및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**한다는 입장을 밝힘

○ 특히 **한-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**(이하 한-인니 CEPA)이 최근 **실질 타결된 것을 높게 평가**하면서, 동 협정이 **조속히 발효**되어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

○ 아울러 FTA 체결로 인한 **관세 인하**가 **수출경쟁력을 제고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**각종 비관세장벽도 함께 개선**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고, 여타 아세안 국가와의 추가 양자 FTA 개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임

□ 참고로, 현재 **RCEP** 협상은 **연내 타결을 목표로 잔여쟁점**(서비스, 투자 등)**을 집중 논의중**인 막바지 상황으로, 금주 후반 개최 예정인 통상장관회의가 협상 연내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임

○ 향후에도 산업부는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민이 FTA로 인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**업계·소비자**와의 **의사소통을 보다 활성화**하는 한편, 동 내용을 협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기획과 이수진 사무관(☎ 044-203-57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